



‘세계적인 천재 와인메이커 안드레아 프란케티의 에트나 와인’

프란케티

Franchetti

지역	이탈리아 > 시칠리아 > 에트나		
포도품종	쁘띠 베르도 70% 체사네세 다필레 30%		
알코올	15.5%	용량	750ml
등급	IGT	시음 적정 온도	15-18℃
테이스팅 노트	주이시한 잘 익은 블랙베리와 블랙 커런트의 과일 풍미와 함께 입 안을 조이는 촉촉한 탄닌의 구조감이 진하고 농밀한 와인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. 곧이어 느껴지는 세이지와 에스프레소, 강한 풍미의 스파이스 등의 노트들과 타르 느낌의 미네랄리티 조화가 매우 인상적이다. 입 안을 가득 채우는 감칠맛 있는 피니쉬로 마무리된다.		



제품설명



해발고도 1,000m에 약 2 ha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로 양조하는 파소피시아로의 플래그십 와인이다. 작은 규모의 빈야드임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약 17hL로 수확량을 제한하여 고품질의 포도만이 사용되며 2014년에는 3,000병 생산되어 한국에서는 그 중 60병만 만나볼 수 있다. 프란케티 와인은 독특하게도 뿌띠 베르도를 주 품종으로 하고 이탈리아의 토착 품종인 체사네세 다필레 (Cesanese d'Affile)를 블렌딩하였다. 에트나의 화산토로 인해 이 지역의 뿌띠 베르도는 보르도의 뿌띠 베르도보다 군살 없는 뽀뽀한 느낌을 주지만 훨씬 더 페퍼리하고 스파이시한 뉘앙스의 아로마틱한 품종으로 재탄생되었다. 이탈리아 라찌오 지방에 기원을 둔 체사네세 다필레 품종은 뿌띠 베르도보다 더 풍부한 스타일에 장미꽃, 레드 계열 과일 풍미가 돋보이는 아로마틱한 품종이다. 에트나의 용암과 스모키한 테루아와 만난 이 두 품종은 굉장한 숙성 잠재력과 집중도 있는 진한 '블랙 와인'을 만들어냈다. 세계적인 천재 와인메이커로 알려진 안드레아 프란케티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출시하는 와인인만큼 이 와인에 대한 그의 노고와 자부심이 여실히 드러난다.

수상내역



2021빈티지 96점
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
2020빈티지 98점

떼루아를 고스란히 전달하며 또 한번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.

와이너리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와인은 직사광선 없이 서늘한 온도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

안드레아 프란케티는 토스카나 지방에서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화려한 데뷔와 동시에 "이탈리아의 슈발 블랑"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와인메이커가 되었다.

프란케티는 이에 멈추지 않고 이탈리아 최남단에 위치한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에서 또 한번 모험을 시작하였다.

에트나는 현재에도 수년마다 폭발하는 시칠리아의 활화산으로서 해발 고도 3,350m의 유럽 내 가장 높은 화산이다. 이 곳에서 프란케티는 에트나의 용암이 흐르고 있어 거의 버려지다시피했던 황량한 땅을 험값에 매입하여 각 구역별로 서로 다른 고도의 위치에 포도밭을 개간하고 와인 생산을 시작하였다. 프란케티의 빈야드들 모두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한 덕분에 굉장히 큰 일교차를 보인다. 또한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토양 내 미네랄 성분과 황 함량이 높아 훌륭한 복합미를 가진 산도 높은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다.

마을의 명칭을 본따 지은 "파소피시아로", 즉 "생선장수의 길 (Fisherman's pass)"이라는 이름 아래, 에트나만의 고유한